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법 정 주 원	집 행 부 원	인 사 부 원	이 사 장	김 영 수
주 필 자	집 행 부 원	노 재 봉	김 영 수	김 영 수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 학보(☎961-4152, 9335-90-4112)
130-791 서대문구 용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동 용인동 4889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THE OE DAE HAGBO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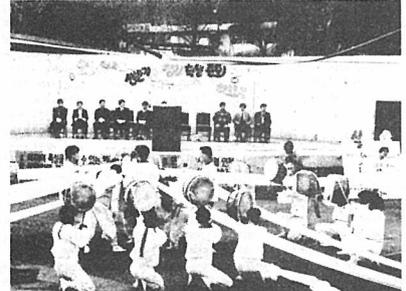
— 정기총회 이후 양캠퍼스 학자전망

출범한 학생회, 다가오는 외대발전

현재 외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들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꼽으라면 아마도 '외대발전'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통하지 않는, 오직 외대만의 고유명사 '외대발전'. 이제 추상적으로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4월 11일(목) 양캠퍼스에서 나간 열린 정기학원총회 및 해오락은 앞으로 진행될 '외대발전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더욱이 아직까지 학생들 사이에 학원지주화(이하 학자)의 열기가 달기까지 않았음을 감안할때 이번 총회는 본격적인 학자의 불을 지피는 역할도 더불어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총회를 요구하고 있다. 학원지주화(이하 학자)는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본행사는 학생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교육제정확화와 학생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학자구구 구구까지 전까지 존재하는 비상사태 구구로 크게 학생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제정을 확립한다는 두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제정확화'는 등록금부담과 함께 진행하면서 현재 GNP 대비 3.7퍼센트인 교육제정을 4퍼센트까지 끌어올려 국고보조금을 확충하고, 나아가 용인캠퍼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일(목) 출범식 이후 양캠퍼스 학생들의 학자운동이 활발하다.

서울, 과·단대별 발전계획 마련 중

용인, 과단위 학자추진 건설 활발

서울, 뜨겁게 타오른 '외대발전'의 열기
서울캠퍼스는 이날 노천극장에서 2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해오락에서 부대인 용인외대에서도 흥분된 외대발전 열풍을 형성하며 전극 '우리의 영광'은 학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기도 했다.

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되었던 것으로도 공청회 개최를 위한 홍보를 통해 '외대발전'의 의의와 학생들의 하나된 공명대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양캠퍼스 공동연대는 '외대발전'의 지름길
이상으로 양캠퍼스 각각의 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 물론 각별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요구되는 부분은 '사실'·용인캠퍼스의 단결이다. 그동안 '하나된 외대'라고 말하면서도 각캠퍼스의 상행에 머물러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캠퍼스 모두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양캠, 캠프 이전문제두고 이견 존재 상호 이해와 토론으로 해결 해야

그러나 용인캠퍼스 학생들 사이에는 캠퍼스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비가 전하없는 시발점으로 지적된다. 또 지난 서울캠퍼스에서 '용인캠퍼스 특화발전'부담에서 반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즉,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특화발전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의에서 명시된 '외대중앙개발계획위원회' 산하 '계획위의위원회'에 서울, 용인캠퍼스 것말에 대해 나란히 하는 것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본의자

돈벌레의 천국, 여의도

▲ 요즘 우리 민중들은 신한국 창조의 기대한 뜻을 유리고 출범한 문민정부의 개혁정세에 대해 보는 시각이 이색스런 것만도 다가가야 한다.

이런과 똑같은 거야? "문민시대인데 뎡기는 다른 거야" "잡랄까?" 등등의 기대반 의혹반의 격정스런 질문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곤 한다.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재 나타난 현상적 비리인지는 전부는 아니었다는 전 국민적 호소 형성된 분노와 말만 번드르르 할뿐 개혁의 짐을 덜어주는 것만 기다리는 현실적 비리의원칙을 처벌해 더더욱 통탄할 눈물을 부어주어야 할까? 그리고 과연 개혁을 통해 민중의 눈을 뜨게하는 고도의 정치수법에 신랄한 날이 있는 것이다.

3면: 서충현, 용성총련 대의원 대회
4면: 경제블러프에 따른 제3세계의 대응
5면: '시민사회 운동'의 비판적 검토
6면: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하여
7면: TV 청춘드라마의 양상에 대하여
8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파문에 대한 보도
9면: 제2 4·3형평년 사건 기념
10면: 개정돼야 할 사립학교법

외대학보 600호 기념공모

주 제: 외대발전 제2의 도약을 위하여
— 생활속에서 느낀 생각이나 경험을 토대로 외대발전에 대한 제언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모집부문: — 논문(50매 내외로 창의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 생활글(15매 내외로 전외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사진(8×10 크기로 3점 이상 제출해야하며 흑백, 컬러 모두 가능)
— 노래(외대인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창작곡이어야 한다)
— 광고(가로37cm, 세로17.5cm 외대학보 하단광고 형태로 완성된 창작품이어야 한다)

자 격: 외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
공모기간: 3월16일(화) - 4월25일(일)
상 금: — 논문 당선: 30만원, 가작: 15만원
— 생활글당선: 10만원, 가작: 5만원
— 사진 당선: 15만원, 가작: 10만원
— 노래 당선: 15만원, 가작: 10만원
— 광고 당선: 15만원, 가작: 10만원

심사위원: 추후공고
접 수 처: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961-4152(서울)
30-4112(용인)



◇ '시민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모순은폐시키는 완충장치



소문상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시민운동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시민사회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시민사회' 혹은 '시민운동'이라는 용어가 요즘은 일반인의 상식 중 하나로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물론 그 내부에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이 혼재되어 있는 하지만, 이론과 실천의 양측면에서 일정하게나마 이른바 '개척 트라이앵글'을 강령하게 추진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한다면, 이론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시민사회론'과 이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운동론'은 앞으로 더욱 행위를 열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한 시기의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지난 시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발전적인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를 일단 차치하고 본래의 말이다.

민사회론,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론,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적 시민사회론 등인데 한국사회운동론과 관련하여 시민운동론에 수용, 아니 수렴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를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 사이의 사적 혹은 자발적 묶음으로 조직되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시민사회의 "중립성"이 모든 민주적 절차의 중립적인 사회구성체로 환원되어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 영역의 구속에 기초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양자의 동시적이며 상호의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제창하고 있다.

중심적 변혁을 표방해왔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노동운동 관제자를 포섭하여 결성된 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할 정도로 사회운동의 제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결성원의 실제 영향력은 언론이나 정부에 의해 과대포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기간의 공정선거 활동을 보더라도 결성원이 추구하는 "공정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하 공선협)는 명실상부한 시민운동의 중심을 함께 하는 중립적 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지역현대의 공선협 결성을 위한 활동은 국민회의 등 민주화운동의 조직적인 선전에 의해 비롯되었었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공선협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지, 여기서 그들은 생산성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그 핵심은 기존 지배체제의 연속성에서 부분적인 손실의 기함으로써 국민대중에 대한 자본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포섭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속에서, 자신이 경제정의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일부 실천정당에서는, 명칭이나 어떠한 것, 제3의 결성으로 변화할 우려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꼭 담 부고 싶은 말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조직 구성상의 어려움은 말론적인 것, 역사상, 대중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중과의 정치적 실천을 매개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 철학, 역사, 사관, 대중성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미 그 발전적인 시구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포스트 O O주의'의 부분별한 수임에서 구원을 찾지 보라는 한국사회의

한 전제적인 보수화의 범람 속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그 핵심은 기존 지배체제의 연속성에서 부분적인 손실의 기함으로써 국민대중에 대한 자본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포섭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속에서, 자신이 경제정의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일부 실천정당에서는, 명칭이나 어떠한 것, 제3의 결성으로 변화할 우려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꼭 담 부고 싶은 말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조직 구성상의 어려움은 말론적인 것, 역사상, 대중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중과의 정치적 실천을 매개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 철학, 역사, 사관, 대중성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미 그 발전적인 시구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포스트 O O주의'의 부분별한 수임에서 구원을 찾지 보라는 한국사회의

한 전제적인 보수화의 범람 속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그 핵심은 기존 지배체제의 연속성에서 부분적인 손실의 기함으로써 국민대중에 대한 자본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포섭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속에서, 자신이 경제정의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일부 실천정당에서는, 명칭이나 어떠한 것, 제3의 결성으로 변화할 우려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꼭 담 부고 싶은 말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조직 구성상의 어려움은 말론적인 것, 역사상, 대중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중과의 정치적 실천을 매개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 철학, 역사, 사관, 대중성에 대한 제검토가 필요하다면 이미 그 발전적인 시구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포스트 O O주의'의 부분별한 수임에서 구원을 찾지 보라는 한국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의 동시적, 상호의존적인 변혁 추구

지배세력의 입장에서선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필요대상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 즉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민사회론'은 국가의 외부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민주적 참여를 주목하도록 했다. 넓은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체에서 분리하여 분리되는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을 추구 받고 있는 관계 하에 놓여있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취위를 낳는 경제생활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취위를 위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국가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국가의 외부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민주적 참여를 주목하도록 했다. 넓은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체에서 분리하여 분리되는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을 추구 받고 있는 관계 하에 놓여있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취위를 낳는 경제생활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취위를 위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국가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국가의 외부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민주적 참여를 주목하도록 했다. 넓은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체에서 분리하여 분리되는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을 추구 받고 있는 관계 하에 놓여있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취위를 낳는 경제생활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취위를 위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국가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국가의 외부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민주적 참여를 주목하도록 했다. 넓은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체에서 분리하여 분리되는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을 추구 받고 있는 관계 하에 놓여있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취위를 낳는 경제생활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취위를 위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국가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민사회론'을 국가의 외부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발시켰고, 나아가 시민운동의 민주적 참여를 주목하도록 했다. 넓은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 시민사회, 경제를 하나의 사회구성체에서 분리하여 분리되는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영역을 추구 받고 있는 관계 하에 놓여있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서 파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취위를 낳는 경제생활의 국가와 자본주의적 취위를 위한 공적 목적과 관련된 국가의 문제에 아무런 해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멀티미디어/新/출판/혁명

동아출판사가 '멀티미디어 출판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출판물' 개발 성공!

21세기 출판의 꽃—멀티미디어 출판—동아출판사가 최첨단 멀티미디어 CD-ROM을 개발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출판은 텍스트, 그래픽,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출판 형태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은 학습, 교육, 문화, 정보,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를 통해 배부시점을 비롯한 모든 상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출판 형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그 역사적인 첫 출발을 동아출판사가 시작하고, 앞으로는 동아출판사가 주도해 가겠습니다.

동아출판사
TEL : (02)861-4818

멀티미디어 출판물 무엇인가?
MULTI (복합적인) + MEDIA (매체)의 뜻으로 문자, 음성, 그래픽,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물은 텍스트, 그래픽,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물은 텍스트, 그래픽, 음성,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물 개발 1호 단행본 CD-ROM은 오상식 생활영어 SOS!

일일영어 우리 한국어를 따라다니는 영어회화의 어려움을 원천 해결했습니다. 영어회화의 어려움을 원천 해결했습니다. 영어회화의 어려움을 원천 해결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신출판 혁명—동아출판사가 주도합니다.

동아출판사는 유아·아동 저서개발과 언어 학습 멀티미디어 출판물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출판, 교육, 문화, 정보,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TV나 컴퓨터를 통해 배부시점을 비롯한 모든 상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출판 형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출판—그 역사적인 첫 출발을 동아출판사가 시작하고, 앞으로는 동아출판사가 주도해 가겠습니다.



지난 4월 2일(금)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양근군에 관계자들이 '양심수 살기도 아슬한데 강제징집 행 말다툼의 구조를 의지해 병 부형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1년 6개월 동안의 이념, 아들의 양육생활을 생각하며 어머니는 물론 매달린을 지체며 아들을 불러 보았을 때, 민기숙소와 아들과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또 다시 떠나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할 때...' 취방 되고 일바라지 않아 군대로 끌려갈 처지에 있는 아들을 걱정 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렇지만, 어머니는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들의 입대를 격려했는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기에 우리나라 청년이면 누구나(복합인 제외) 가야할 군대. 그러나 양근군은 '군대 가기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성불가침'에 대한 정면 도전 발언이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 당시자들의 숨겨진 호소, 그리고 집회 등의 모습을 통해 이미 발전의 수준을 넘어 도전장은 던져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이면 누구나 군대 가야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대한 물결이 정면 도전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양근군도 '해결'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유리미한 작업인 것이다.

정치 격변의 시기마다 바뀌는 시행령, 정치 보복적 제도 '특혜달라' 아니라 '과거의 불평등 개선' 요구



지난 4월 2일(금) '양심수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관계자 50여명은 병무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순히 '고집수도 있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없다. 현 시행령은 안정적인 집권정부를 위한 돌봄부의 권위주의적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행령 개정의 시기마다 바뀌는 시행령 개정은 결국 '정치 보복적 제도'라는 큰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행방정지'라는 범정신에 기 초한데에 시행령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양심수들의 경우 1~2년 미만의 형기간도 대부분 군정점제에 면제되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정해야 될 군사독재 제도, 병역법 시행령

는데 반해 사극사범은 출소 전에 양장 발부하고 출소 후 바로 입대하게끔 하고 있다. 병역 수 수가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인 것이다. 7.분데 한민족 화인·감시당했 습니다. 과거처럼 기무사가 파견 나와서 감시하기도 하지만 상원에게 매달릴 감시 당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 추세입니다'라고 말하는 본교 김시선 군(법대·법학) 86년 8월 20일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포착치 강요, 녹화사업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것은 양심수가 제대로 대응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인 것이다. 7.분데 한민족 화인·감시당했 습니다. 과거처럼 기무사가 파견 나와서 감시하기도 하지만 상원에게 매달릴 감시 당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 추세입니다'라고 말하는 본교 김시선 군(법대·법학) 86년 8월 20일

□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위원장 김정훈(서울대사회학과 졸업·87) 군을 만나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지난 89년 민정당 정치농성으로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90년 법민족대회로 또다 시 8월을 선고받아 총 2년 2개월 수형생활을 했습니다.

6공청산에 포함해야 할 양심수 군대 문제

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을 결성할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를 그대로 양심수의 군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심수는 김영삼 대통령도 만났지만 청춘과 목숨을 바쳐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일당기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수 군대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과거 군사 정권 시절 군대는 이 사회의 양심기둥으로 존경해 왔으며 그들은 군대 내서 특별한 감시·통제 당

"양심수 군대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서 일하던 사람과 최근 나온 양심수들이 뜻을 모아 올해 1월 10일 결성했습니다. 양심수 군대 문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자신의 일을 찾든가, 국가 피를 하는 등 군문제를 개인적

했습니까. 양근군 관계자들이 겪는 생활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영감이 나왔는데도 군대에 가지 않고 도피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자신의 일을 찾든가, 국가 피를 하는 등 군문제를 개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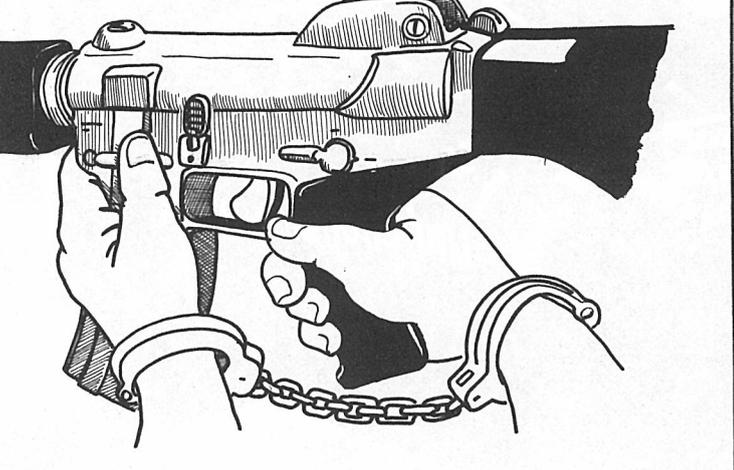


신한국호의 걸림돌

감옥의 끝은 군대?

그리웠던 외대의 빛들에게 봄이 찾아드는 외대의 교정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6개월간 정들었던(?) 수의를 빛고 정겨운 이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들의 마음은 새내기처럼 설레이고 새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와 희망은 더이상 우리를 부풀게 하진 못합니다. 출소하자 10일만에 나오는 입영통지서, 특별관리, 녹화사업, 조직사건조작... 조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학우를 사랑했다는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교정과 보고했던 얼굴들을 뒤로하고 저들의 손에 끌려가야 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6~7년 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봉받는 우리들의 정혼을 거센 바람의 흩날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까. 이제 적지만 소중한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때만 강제징집 음모-병역법시행령-의 축수를 잘라버립니다. 빛들의 따뜻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지지서명
언 제 : 4월 6일(화)~8일(목) 이른 11시~늦은 5시 30분
어디서 : 서울캠퍼스 붉은 광장
일일주점
언 제 : 4월 13일(화) 이른 10시~늦은 12시
어디서 : 학생회관 앞 전시실과 Yes. Bash (에스 배쉬)



한국외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961-4502)

□ 문화평론 - TV 청춘드라마들의 앙상에 대하여

진실 결여속에 인물경쟁만

애정문제만 부각시켜 흥미유발

최근 TV드라마부류 인기프로 순위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의 청춘드라마가 10위권 내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대학 1·2년생들 내 코스타지 한밤을 보았을 때 MBC의 '우리의 청춘'과 근년에 방영되고 있는 SBS의 '열정시대' 그리고 KBS의 '내일은 사랑'이 그것이다. 중·고교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청춘드라마에 대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드라마가 이처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단지 그 내용이나 다른 드라마에 비해 뛰어난 점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서는 위의 드라마들이 코스타지들이 아닌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사진은 sbs '열정시대'의 한 장면

다한 이들이 있다. 마치 인물경쟁이라도 하듯 각 방송사들은 미남 미녀배우들을 기용하면서 얼마전 MBC '우리의 청춘'에는 가수 한수호와 연극배우 이영란까지 출연시켜 비야호로 본격적인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극중 인물들이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주로 연애나 사랑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출연진 대부분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주말드라마나 멜로드라마와 별 차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는 젊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는데도 '홍미유발'이라는 장미(?) 때문에 연출자들이 도사리를 갖는다. 마치 일찍이 자신의 전공과 전문분야를 연연하는 학우들의 모습, 대학내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는 이들과 일반 학우들 사이의 갈등, 이렇듯 강 그밖에 한시나 대학의 생활(학내외) 문제, 사회·경제 등을 드러내지 않거나 현실을 있게 그려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하나 긍정적인 대담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작가나 출연진들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리얼한 광고를 얻기 위한 자본주의적 논리가 숨어 있음이 보다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방송사들이 시청자보다는 자사(自社)의 이익을 위해 즉 내방송에 충성을 기하기 보다는 인물·홍미유발의 드라마를 통해 높은 시청률을 얻기 위하여 그 논리인 것이

소비, 향락적인 모습으로 이질감 느끼게 해 높은 시청률을 점유해 수많은 광고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돼

인들은 원인과 내용상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올해 출연진들의 전연 교세로 세대감을 한 '우리의 청춘'은 청춘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 정상스타 김현우, 강동진을 동용해 대학 초년생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들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방송을 시청하는 데까지 없었지만 시청자들로부터 비교적 큰 인기를 얻고 있는 SBS의 '열정시대'는 대학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캠퍼스 커플이라는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3명의 남녀들이 사랑·우정을 키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청춘드라마의 영광을 피할 수 없었던 얼마전 KBS에서도 '내일은 사랑'이라는 프로를 개성했다. 그러나 태생종족의 청춘드라마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이상의 세드라마의 공통점을 살펴 보면 그 성격상 출연연우 모두가 젊은대인 특색 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청춘스

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는 다르다는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에 부합하는 내용들(주로 연애·사랑 문제)을 다루려는 의도도 그들이 흐르고 있다. 사실 TV 뿐 만이 아닌 주위의 대학생들을 보는 청춘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동경과 신망의 대상으로 비추어 진다. 이전까지의 고등학교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적이고 소비적인 성질치 못하든 모습들도 그들에게 '대학생이니까' 하는 마치 특권 비슷한 보호막으로 모면되어 있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다룬다는 청춘드라마가 인기 청춘스리플을 통해 소비적, 유희적 문화와 그려냄으로써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마치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 대학에 다니는 이들에게조차도 이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실용적응을 뛰어넘어야 할 드라마가 널리 저변의 영향을 받아 번식되는 것 같아 아쉬워진다. <이재우 기자>



□ 독자투고 - 한국영화의 현실, 그 대안은

한국영화에 대한 선입견 없어야

국내 영화계의 자체 노력과 국내 영화의 보호, 육성 절실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한계를 뛰어 분할을 토로했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적체사와 수입업자간의 시장점유율 경쟁은 마치 리얼타임 게임이나 청일전쟁처럼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무관한 침략자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이 폐지되고, 국내영화의 보호육성을 위해 마련된 스크린쿼터제와 규약자들의 비협조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영화제작사들이 영화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수임해 상영한 뒤, 그 수익금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현실에서 볼때 이는 더욱 위태로운 현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현실속에서 영화계 일각에서는 우리영화에 대한 비관이나 대외되고 있으며 명연작이 실존을 못하고 있는 영화인들도 허다하다. 갈수록 영화계 작파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영화는 여기서 주저 않고 내딛어야 할 것인가?

한국영화의 보호육성을 위해 마련된 스크린쿼터제와 규약자들의 비협조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영화제작사들이 영화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수임해 상영한 뒤, 그 수익금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현실에서 볼때 이는 더욱 위태로운 현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현실속에서 영화계 일각에서는 우리영화에 대한 비관이나 대외되고 있으며 명연작이 실존을 못하고 있는 영화인들도 허다하다. 갈수록 영화계 작파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영화는 여기서 주저 않고 내딛어야 할 것인가?

것은 비단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 열등의식을 배양할 소지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전문지나 신문 등에 영화평을 기고하는 사람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역영화의 평을 좋게 쓰면 국수주의고, 영화를 소개하거나 호평하는 것은 사대주의라는 식의 소위 악비평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어찌나 없는 것은 광고주의에 영향과, 존지에 좌우되는 평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객관적 비평의 잣대를 잡지 못한 평론자가 활약하는 세상에서 우리영화는 의외의 영화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상당히 예민한 것이다. 이상의 예민한 우리영화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서론에 불과하다. 대대적이고 지적인 세기지도 해를 맞던 현실과 수월의 특성을 띠고 있다. 앞선 시대의 에피를 모두 끌어안으면서도 뒤집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영화의 나후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인들의 각성과 노력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객을 통한 보지도 않고 지극히 의민하지 않고서도 나나 무조건 민망의 잘못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영화제작자, 감독, 연출자, 그리고 배우, 그리고 스태프까지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영화가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국제영화에서 작품성을

있다는 것은 부당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올해초부터는 30개 서 울대 개관장을 앞 두루를 제외한 모든 극장이 흥행했다. 한편 우리드라마도 그리고 영화화 로 도매를 한 상태이다. 임철하와 이영란도 대표적은 흥풍의 부형영화가 우리의 영화시장을 점령하게 될 조짐은 작년부터 엿보였다. 흥풍의 금지시킴서 미봉적인 해고였을 것이 말적이나 영화계 주변에 종사하는 나예과 고루적인 현실은 바뀌어왔다. 어느 영화가 대박몰라 안지리할 지나 수익률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책자의 징후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작가가 말했듯 '영화, 특히 우리나라 영화의 현실'에 대한 이렇듯 생각들을 써 봐야겠다'는 충동이 생겼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이 외국 그것에 비해 현미의 나후에

한국영화의 보호육성을 위해 마련된 스크린쿼터제와 규약자들의 비협조로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영화제작사들이 영화의 수입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수임해 상영한 뒤, 그 수익금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현실에서 볼때 이는 더욱 위태로운 현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현실속에서 영화계 일각에서는 우리영화에 대한 비관이나 대외되고 있으며 명연작이 실존을 못하고 있는 영화인들도 허다하다. 갈수록 영화계 작파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영화는 여기서 주저 않고 내딛어야 할 것인가?

것은 비단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 열등의식을 배양할 소지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종 전문지나 신문 등에 영화평을 기고하는 사람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역영화의 평을 좋게 쓰면 국수주의고, 영화를 소개하거나 호평하는 것은 사대주의라는 식의 소위 악비평을 가진 사람이 혹시나 어찌나 없는 것은 광고주의에 영향과, 존지에 좌우되는 평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객관적 비평의 잣대를 잡지 못한 평론자가 활약하는 세상에서 우리영화는 의외의 영화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상당히 예민한 것이다. 이상의 예민한 우리영화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서론에 불과하다. 대대적이고 지적인 세기지도 해를 맞던 현실과 수월의 특성을 띠고 있다. 앞선 시대의 에피를 모두 끌어안으면서도 뒤집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영화의 나후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인들의 각성과 노력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객을 통한 보지도 않고 지극히 의민하지 않고서도 나나 무조건 민망의 잘못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영화제작자, 감독, 연출자, 그리고 배우, 그리고 스태프까지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영화가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국제영화에서 작품성을

최준영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중국어과 졸업)

□ 시사칼럼 - 영화하고 권력정리

3. 우리는 어떻게 영화를 읽는가? (강사: 정성민)

할리우드의 관객길들이기(이를 통한 상업적 성공)방안은 엄격한 장르화, (최소한의 적지는 변할 수 있는) 스타시스템, 그리고 관객이 분기화를 미리 읽도록 하는 마케팅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할리우드가 공식화시킨 장르분류기를 살펴보자. 웨스턴의 경우 아메리카의 신화화를 통해 '문명이 야만을 지배·교화하는 것은 정의·도덕'이라는 주제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고, 멜로드라마는 자본주의에 안고있는 사회적 갈등을 개인적 심리적 문제로 축소시켜 약화시(역성으로 상징되는)는 양립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갱스터의 경우 반사회적인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표면적으로는 체제 비판처럼 보이나 더 깊이는 영웅주의를 통한 '기회의 나라 아메리카를 살린다'고, 동시에 범죄자(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수적 통의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흔히 80년대 말 프랜차이즈적 감독 이영란의 공포·사이코물, 70년대 이후의 테트넘 소년물들도 언뜻 보기에 체제비판이라 여기기 쉬우나, 역시 그보다는 체제불만의 근거는 '새롭고 낯선 것=진보주의'가 동등·공정·자유·오리비적 영웅적 모습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경고성 영화라 보는 것이 옳다. 최근엔 펠트(이것은 '월리웃'장르가 아닌 자본주의적 영화 생산체제가 빛을 기형적 과수용현상이다)와 '영화, 프로드라마나즘적 표현 등으로 기존의 장르범주으로는 꾸미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할리우드가 장르를 포기했다가 보았다. 오히려 이는 미국영화기승 장르의 중저기법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보는 것이 올바른 관이다. <정미·문화부>

시상 전람회

지난 3월28일(월)부터 4월2일(금)까지 용인캠퍼스 학생회 정시실에서 독도문제연구회에서 주최한 '독도의유니'대 창설 40주년 기념 독도 영상제가 열렸다. 독도의 맑고 아름다운 경치를 포착한 사진들이 여럿 찍어졌으며, 간략하게 독도의 역사를 사진으로 적어놓은 독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확고한 것으로 일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문제 '공해(公海)'로 규정되어 제3국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땅이다. 역사적으로 '이우나란' 일본이 수없이 침략하고, 호시탐탐 뺏아갔으며, 우리나라 사람들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독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고 있어 이번 전시회는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영기자>

독도의 역사를 한눈에



독도영상전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 신청 안내

1993학년도 2학기중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나 희망학생은 신청하기 바림.

1. 지원대상 : 본 대학교의 델라웨어대학교에 공통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
2. 이수과목 : 전공 및 부전공분야의 교과목을 원칙으로 함
3.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소속 학과장, 학생의 지도 승인을 받은 학생
 - 1학년 이상 수료자로 2.3학년 학생
 -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 TOEFL 점수 550점 이상인 자(이전에는 520점 이상, 해외 영문시험 성적 B 이상인 자,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문시험 합격자)
 - 기타 해외여행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4. 신청기간 : 1993년 3월 22일(월)~4월 23일(금)
5.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국·영문) 2지부
 - 교환신청서 (국·영문) 2지부
 - 교과목 이수계획서 (한국·영문) 1부
 - 재정지원 신청서 (한국·영문) 1부
6. TOEFL 또는 해외 영문시험의 해당 성적 및 이수증명서 2지부
7. ○ 방학기간 사진 4매
- 신원보증서(학교 소정양식) 1부
- 동학급 담임교명서(신발부 8학급 제한) 사본 1부
8. 교환기간 : 1) 1993년 9월-1994년 2월 (6개월, 1개 학기)
2) 1993년 9월-1994년 8월 (1년, 2개 학기)
9. 신청장소 : 서울캠퍼스 학생부 (TEL: 961-4033, 4035) 용인캠퍼스 학생부 (TEL: 0335-30-4034)
10. 기타 유의사항 :
 - 본 대학의 해당 학과의 등록을 끝내야 하며, 델라웨어대학교에서 필수로 하는 모든 경비는 자비로 부담한다.
 - 소정의 학기기간이 만료된 교환학생은 귀국보증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수급신청을 소정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교환학생은 교환대학의 책임자가 증명하는 성적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기간중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환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에 교환학생에 대한 소속 학과장, 학생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1993년 3월
학생처장

하계 영어 연수 안내

1. 연수지역 및 연수대학 : 미국 서부 소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연수일정 : 1) 연수출발일정 : 1993. 7. 13. 3) 김포공항 국제1차사 검정 예정
1993. 7. 14. 3) UA 808 김포공항 출발 예정
2) 연수귀국일정 : 1993. 7. 6. San Francisco 도착 예정
3) 연수환송 기간 : 1993. 7. 6. - 8. 12. (약 6주간 예정)
3. 견학일정 : 8월 13일: 버클리와 요세미티-프레스노 견학
8월 14일: 프레스노-리노스견학
8월 15일: 라스베이거스-그랜드캐년 견학
8월 16일: 그랜드캐년-나. 견학
8월 17일: 나. 견학
8월 18일: 나. 견학
8월 19일: 나. 호노룰루 견학
8월 20일: 오하유시 견학
8월 21일: 호노룰루에서 자유시간
8월 22일: 호노룰루에서
4. 연수준료 및 서둘 도착 : 1993. 8. 23. 15: 50 국제1차사 도착 예정
5. 연수경비내역 : 1) 수업료 및 신청료 : \$1,055.00
2) 숙박비(2인1실) : \$1,510.50
3) 간식비(월) : \$ 60.00
4) 업무수준 및 수속관리비 : \$ 300.00
5) 항공료 및 공항 여객기비 : \$2,367.00
6) 유학생 장학금 : \$5,312.50
7) [보통] 해외여행비, 귀국사제비, 등 경비(비용은 제외)
6. 여행구비서류 : 상임서 사무처에 배부 및 안내 받을 것.
7. 공지사항 : 버클리어에서 직접 설명회 개최 (4월 6일 15시~17시, 시청자초대 400인)
8. 기타 : 1) 경비내역은 유예금 계좌 012625-0000211 장 명으로 1993. 5. 27. 까지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및 비자발급은 담당 처리함.
3) 소모임 : 사전에 일괄행함.
4) 세부일정은 여행경비를 사전 숙지하여 차후 의문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함.
5) 기타 자세한 것은 각 학생처에 문의함
서울 학생처 : TEL: 961-4033, 용인 학생처 : TEL: 0335-30-4033

학생처장

